



2026 진안고원 동호인 역도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진안 역도훈련장에서 2026년 진안고원 동호인 역도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진안군역도연맹/(사)진안역도스포츠클럽 주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출신 선수를 제외한 전국 역도 동호인 200명이 참가한 남자부(150kg 이하급, 150kg 초과급), 여자부(120kg 이하급, 120kg 초과급)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회 기간 중인 14일에는 제22회 진안고원 운동산 고로쇠 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고로쇠 고원길 걷기대회'가 함께 열려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남자부 150kg 이하급에서는 팀데빌과 오도해병팀이 150kg 초과급에서는 팀데빌과 고려대 역도부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서는 120kg 이하급에서 Crossfit Apex팀과 Up Strength팀이 120kg 초과급에서는 팬텀 트레이닝팀과 Crossfit Apex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를 주관한 (사)진안역도스포츠클럽은 2022년부터 대한체육회와 진안군의 지원을 받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5월에는 역도를 기반으로 한 2026년 진안고원 전국 크로스핏대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선수와 방문객이 진안을 방문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평화2동 영락교회, 저소득층 아동 위한 장학금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영락교회(담임목사 유사무엘)가 새학기를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영락교회는 최근 새학기를 맞아 학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새학기를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겪는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시작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권희성 기자



전은, 군산 저소득가정 위해 생필품 꾸러미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16일 군산시에 생필품 선물꾸러미 160상자(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꾸러미는 즉석밥, 소면, 라면, 컵누룽지, 김, 지역 찻술, 물티슈 등 총 8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군산시를 통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동충동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남원시가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충동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며 총 30개소 31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확충으로 전북자치도 내에서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운봉농협에 설치되어 있던 기기를 각각 향교동과 운봉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남원시 23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이후 급증하는 발급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원도우 11 보안체계 업그레이드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 편의·안전 최우선... 힘 모아달라”

김윤덕 국토부장관, 철도공사·에스알 신임 사장 임명장 전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과 정양국(주)에스알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철도운영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만큼 국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24시간 안전한 철도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국민과의 약속인 고속철도 통합을 언급하며 “통합의 첫 단계였던 교차운행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만족해하며 하루 빨리 더 많은 좌석이 공급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완전한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열차탈선, 작업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도안전관리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에게 “다윈시스 납품 지연 사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조기 납품과 노후 차량 대책을 행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철도 운영 여건이 급변한 만큼 철도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민편의를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공사 자회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대한민국 철도는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 수단”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편익의 철도 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권희성기자

박종군 장도장,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 대회장 재위촉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해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의 운영 사항을 총괄할 대회장에 국가무형유산 박종군 장도장이 재위촉되었다.

이번 재위촉에 따라 박종군 대회장은 2026년 3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제29회와 제30회 대전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국가무형유산 제60호 장도장 기능보유자인 박 대회장은 국가무형유산기념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전통공예품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전통공예 분야의 대표 명사다.

남원시는 이번 제29회 대전부터 지역 문화예술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공예’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명칭을 ‘대한민국’으로 공식화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공예 분야 최초로 최고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승격시키는 결실을 거두며 대전의 권위를 한층 강화했다.

장수 지역사회, ‘모두가 한 번 장학생’ 프로젝트에 온정 잇따라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이 추진 중인 ‘모두가 한 번 장학생’은 영리한 장학생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어지며 장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추 교육장이 2년째 매년 사비를 출연해 졸업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장학 나눔으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장수군건설기계협회 리영호 회장과 신병호 장수교육지원청장이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장수군내 한 초등학교 교장도 제자 사랑의 뜻으로 사비를 출연해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지역 내 한 유휴화사 역시 관련 보도를 접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장수읍노인회 유상일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후배사랑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장수 학생들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마음이 더욱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아영면 지사시험, 밀반찬 지원 올해도 추진

남원시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주)는 밀반찬 지원사업 ‘이영이네 반찬, 흥부가 기가막히!’를 작년 이어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1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리노인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이 1일가구 소분행정을 통해 밀반찬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인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까지 함께 제공하는 ‘돌봄형 복지사업’으로 추진 사업명에 담긴 ‘흥부가 기가막히!’라는 표현은 나눔과 정(情)이 살아있는 이영면민의 지역공동체를 상징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출품 희망자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또는 서울 남원 장학숙을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63-620-667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커지고 있다. 유상일 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금등,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남원시 금등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지난 13일 관내 빈티아(대표 이광준)와 부산잡(대표 이정순)을 착한가게 31호점과 3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광한무원 인근의 빈티아(대표 이광준) 카페는 한국 뷰를 즐기며 차한 잔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추어탕 전문점 부산잡(대표 이정순)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매장이자

한편 김봉래 동장은 빈티아와 부산잡에 감사를 전하며,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착한가게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장수소방서 비번 소방관, 어린이집 화재 막아

장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경 남원시 도동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 뒤편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 놀이터에 있던 장수소방서 반암119지역대 소속 문주현 소방위(42)는 건물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소방위는 직감적으로 화재임을 인지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화재 현장은 어린이집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 인근으로, 불길이 번질 경우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문 소방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주변 건물로 뛰어 들어가 소화기를 발려온 뒤 침착하게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날 불은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주운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가 남은 불씨가 주변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소방위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완전되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벽 일부와 에어컨 실외기에 그을음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칫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화마를 초기에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활약한 문주현 소방위는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나섰다”고 단언하며, “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무엇보다 다친 사람 없이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어 다행이다”라고 겸손한 소회를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인후신협, 로맨스스캠 예방으로 감사패 수상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인후신협 이근경 주임이 신종사기범죄인 ‘로맨스스캠’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전주 덕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장 수여식은 지난 13일 인후신협 본점에서 진행됐다. 인후신협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조합원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요청으로 거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점을 포착한 신협중앙회 상시감시팀이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에 자동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1차 피해를 막았다.

이후 지급정지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사흘 뒤인 9일 창구를 방문해 “지인에게 보낸 정상적인 돈인데 왜 막느냐”며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했다.

당시 창구에서 A씨를 응대하던 이근경 주임은 고객이 당황하며 서두르는 모습과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처음에는 A씨가 사기 피해를 부인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 주임의 설득 끝에 결국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약 3,000만원 규모의 자금이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는 ‘최종 인출 단계’를 차단할 수 있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UPS 안전성 향상 전략 세미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데이터센터용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향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조사와 운영사, 검사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핵심 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데이터센터 현황과 주요 이슈를 비롯해 데이터센터를 배터리 안전 강화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 검사·인증 및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리튬계 배터리 사용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과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한 고신뢰성 무정전전원장치 구축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김제자봉센터, '인부 묻는 발걸음' 사업 추진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고령을 예방하고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인부 묻는 발걸음' 실행계획 당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13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11개 읍면동에서 선발된 '인부 지킴이' 봉사자 45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활동 수칙과 방문 시 유의 사항,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방법 등을 공유하며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1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37주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읍면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